

— 12월호 Vol.5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을독

2020. 12. 24



**성탄과 새해, 감사와 소망으로
울독의 꿈을 나눕니다**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어느덧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면 몸과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마무리 해야할 일들 속에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넘치게 받은 것들이 많아 감사한 마음이 더 넘칩니다.

*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왜 그렇게 아이들 마음을 설레게 했던지요? 그날의 의미도 모르면서 썬타를 기다리기도 하고 길가다가 여학생의 손에 이끌려 생전 처음 들어가 본 교회에서 선물을 받기도 했지요. 그저 또래들이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주는 떡국을 먹으며 정성스레 선물들을 포장했지요. 자정을 기다려 그 선물들을 들고 산동네 구석구석 판자집들을 찾아다니며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을 울리는 찬송가 소리에 널빤지 문이 빠끔히 열리고 어리둥절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나오면 그 선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했지요. 모두가 난했지만, 이웃끼리 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

마스 이브 하루만 통금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학에 진학한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는 밤새 술마시고 데이트하는 날로 변했지만요.

북한에 가서 살면서 느꼈던 것은 비록 가난하고 통제된 사회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감이었습니다. 대학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사무원들과 청소부와 경비원들, 구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아주는 이용사들, 카페와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분한분이 순박한 표정과 말씨로 우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모란봉 올밀대를 올라가다 보면 휴일이라고 가족끼리 소풍나온 사람들, 단체로 야유회를 나와 막걸리 판에 춤추고 노는 사람들, 그 틈에서 구경하다보면 같이 춤추자고 잡아끄는 아주머니들의 손길, 일주일에 세 번씩 학교 버스를 타고 시내에 쇼핑을 하러 가면, 평양시내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지요. 통일 시장이라 부르는 커다란 장마당에는 북한 여성들이 들고 와서 파는 매대마다 과일과 채소와 생선과 각종 야채가 풍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가는 북한 분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매대 사이를 다니다 보면, “아버지 날래 오시라요. 작아도 조국 사과가 맛있디요.”, “칠보산 송이버섯 한



근에 만원이네요.”, “오늘은 닭알 안사시요?” 하며 단골을 알아보고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손짓으로 부르곤 했지요. 환전상에게 달러를 바꾸어 북한 돈을 들고 흥정을 하고 양 손에 한 보따리씩 장을 보아 돌아오곤 했지요. 그렇게 시장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른 생각은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던 시장바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오래전 다정하고 정겨웠던 가난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한해 한국 사회를 돌아켜보면, 두렵고 살벌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만 틀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걱정되는 소식이 가득한데, 정치인들은 편을 갈라 싸우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치하고 언론 역시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 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자살율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낙태율과 저출산율 세계 1위,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운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흐뭇하고 정겨운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끔찍하고 낯뜨거운 소식들만 가득한 나라에, 그래서 드라마와 노래와 스포츠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나라이기에, K-pop과 한류가 맹위를 떨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언젠가 뉴스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누가 더 높을지 가늠이 잘 안됩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이 더 행복하고 북한은 최악의 불행국가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연변과 북한에서 25년을 살아가던 제가 어느새 다시 포항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도 미처 못한 상태에서 경상북도에서 찾아와 남북경협을 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계획을 짜고 머리를 맞대고 일한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한동해 포럼)을 만들어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고, 70명 가까운 회원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역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럼이 꿈꾸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70년간 갈라져 이질적으로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모르고 오해하고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민족을 다시 만나게 하여 사이 좋게 서로 돕고 서로 왕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열자는 것 아닐까요?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그리했듯이, 아니 얼마전까지도 가난했지만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정겹게 살아가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다녔던 그 수려한 경치·경관들이 떠오릅니다. 묘향산과 구월산, 금강산과 칠보산, 원산갈마해수욕장과 함흥의 마전해수욕장, 안창호, 손정도, 양기탁, 조만식 등 근현대사 민족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던 강서에서 유명한 약수를 한모금 마시고 남포항구로 나아가 서해갑문을 둘러보고, 사리원과 개성을 거쳐 판문점 가던 길... 그 많은 관광지들을 남쪽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며 아름다운 북쪽 안내원들의 친절함 설명을 듣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자는 것이겠지요? 포항에서 단천까지 동해북부선 기차를 타고 남북해양수산교류협력센터를 오가고, 영일만 부두에서 크루즈를 타고 원산과 청진과 라진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

라가고, 돌아오는 길에 북측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남북한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통일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꿈, 그것을 하자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자유와 평등으로 양극화된 남북한 만큼이나 한국 사회도 여러가지로 갈라지고 싸우는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허리잘린 분단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근원적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사회는 분리와 갈등과 싸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아들딸에게 손자손녀에게 또 물려준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새해에는 조금은 더 나은 세상, 조금은 더 서로 양보하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손을 맞잡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경협이 시작되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열리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연합 코리아(통일이 되기전 서로 돕는 코리아)가 지정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올라서고 유라시아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에 한 귀퉁이 작은 일부터 우리 포럼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의 동해가 이어져서 남과 북의 연합과 상생의 물꼬를 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포럼에 그런 원대한 꿈을 꾸는 회원들이 많이 모인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안고, 2021년 신축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원포 회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기쁜 성탄절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0.12. 24 회장 정진호 올림





허씨비단 명주길쌈 이야기



허 호 부회장 (허씨비단직물 대표)

상주 함창 지역은 예로부터 뽕나무가 풍부하고 누에치기가 번성하여 명주를 짜는 농가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양잠 및 길쌈 문화의 중추라 할 수 있다. 전국 최초의 양잠 학교(1921년 설립된 상주농잠학교)와 최초의 누에고치 공판장, 전국 최대 규모의 제사공장이 모두 상주에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상주 제사공장은 현재 사라졌지만 함창에 소재한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이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명주전 또한 함창 5일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옷감의 이름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함창 명주라 불렸다.

본래 명주길쌈은 아녀자의 고유 영역이었다. 남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1960년대 말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직기가 기계화된 시점이다. 이 무렵에 나는 모친으로부터 모계로 이어져오던 명주길쌈 가업을 계승하였다. 한 마을에 살았던 처 민숙희와는 베틀 수리를 핑계로 만나다가 평생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로부터 부부가 합산 9대 째(허호 5대, 민숙희 4대) 명주길쌈 인생을 함께하고 있다.

1970년대는 나일론 등 화학섬유의 발달로 전통 섬유가

사라져가던 암흑기였다. 명주는 화학섬유 의류에 밀려 옷감의 가치를 잃고 수의용 옷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열기를 앞세워 고급 옷감인 명주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도전하였으나, 화학섬유의 편리한 의생활에 길들여진 수요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시장 개척에 나섰으나 반응하지 않는 현실에 낙망하였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업을 접을까하는 생각까지 들 즈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명주 옷감의 원료는 누에고치이다. 누에고치 중에 누에 두 마리가 고치 하나에 들어가서 짓는 쌍둥이 누에고치는 풀려나오는 실이 균일하지 않아 불량품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매끈하게 실을 뽑을 수 없는 쌍둥이 고치실의 툭툭 불거진 불량 부분을 무늬로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성껏 옷감으로 직조하여 고급 한복 옷감 시장을 노크하였다. 시장의 반응은 소위 대박이었다. 세상에 없던 옷감이 나왔다는 것이다. 불량 명주실로 고급 옷감 시장을 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세상에서 처음 보는 신제품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평생 명주길쌈의 길을 걷는 정식 직업인이 되었다. 쌍



동이 고치실(玉絲)은 불량이라 원가가 저렴하였고 독점 생산, 독점 공급의 구조이므로 가격 결정권을 생산자가 가지게 되었다. 수의가 다량으로 판매되는 윤달 이외에는 명주짜는 마을에 숙련된 일손도 많았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최고의 숙련기술자였으니 돈벌이에 그보다 유리할 수 없었다.

작은 발상의 전환이 혁신적 활로를 개척하는 경험을 한 후에는 신제품 개발, 생산시설 개선, 시장 확대 등 사업의 재미에 매료되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교대근무로 24시간 베틀을 돌리며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 그만 일찍 지치게 되었다. 90년대 말에 문득 결혼할 때 했던 농담 같은 약속을 떠올리게 된다. 신혼 초기에 “앞으로 밀천이 생기면 명주길쌈 일을 접고 직업을 바꿔 편하게 살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아내와 편하고 멋진 직업을 찾으러 나섰다. 시내에서 유명 스포츠웨어 대리점 둘을 나란히 배치하여 운영하는 친구에게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친구의 답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였다. 본인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휴일의 자유가 없고, 항상 사람을 상대하며, 극성 손님을 만나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이 수시로 드는데, 그 친구는 그동안 우리 내외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명주만 잘 짜면 배짱으로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통장으로 입금하니 손님 스트레스가 없고, 돈 잘 벌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다른 직업을 찾는 노력을 세 달 동안 지속하였다. 평소 부러움의 대상이던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비슷한 말만 듣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아내와 밤에 마주앉아 결론을 내기로 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어떤 직업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단다. 결론이 났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바꿀 직업은 없다. 평생 명주짜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데 힘들다. 그래서 큰 결단을 했다. 돈벌이 직업으로서의 명주 짜기는 오늘로 끝이다. 내일부터는 명주길쌈이 우리의 취미생활이다. 하루 밤 만에 발상을 180도 전환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마당을 거닐다 새로운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출근시켜야 할까? 그럼 우리 내외는 어떻게 할까? 가업을 취미화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마침 헛간 구석과 마당가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에 눈길이 갔다.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쓸모가 없게 된 명주길쌈 도구인 옛 물레, 베틀 등이 보였다. 바쁜 주인의 무관심 덕분에 태워 버려지고 고물상에 넘겨질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는 전통 명주길쌈 도구였다. 그 모습을 보니 무언가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옛날 방식으로 돌려보고 만져보니 뭔지 모를 충격, 전율을 느꼈다. 돈벌이에만 빠져 오랜 가업의 문화적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옛 길쌈 도구들은 실용적 관점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지만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무가지보(無價之寶)였다.

이때부터 취미생활로서 명주길쌈 인생을 시작하였다. 마을에 남아있는 명주길쌈 도구를 모으고, 취미삼아 전국을 다니며 수집하니 제법 구색이 갖추어졌다. 이후 2003년에 지역 축제장에서 뜨거운 성원 속에 길쌈체험 행사를 진행한 이래, 공장의 한 편에 명주길쌈 전시·체험장을 만들어 상설화시켰다. 명주길쌈을 문화로 해석하는 시대를 이끌며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먼저 소장품을 기증하여 2013년 명주박물관이 개관하였고, 2014년에는 함창마을미술프로젝트 주민위원장으로 함창명주 예술마을 조성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열정적인 공무원과 협업하여 함창명주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이 함창으로 이전하고,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건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화로 거듭난 명주길쌈이 지역사회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리라고는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고통받던 직업이 발상의 전환으로 문화이자 취미생활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의미 부여를 하니 즐거웠다.



100여 종의 신제품 명주 개발, 생산 시설 개선, 특허 기술인 명주 감물염색의 세계 등 새로운 시도마다 특허(9건) 및 실용신안(2건), 공모전 입상(20여회) 등의 성과가 되었다.

명주길쌈을 문화로 해석하여 2003년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소실되고 있는 명주길쌈 산업유산의 수집·보존 노력 등은 경상북도 문화상(문화 부문) 수상, 경상북도 산업유산(명주길쌈 산업유산 群) 선정,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지역명사 선정, 전국 13대 산업관광지 선정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 개인적인 성취와 함께 전국 유일의 전통 명주가 계승되는 상주 함창이 문화의 고장으로 변모해가는 분위기도 명주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아들도 사회경험 후에 돌아와 가업을 6대째 잇겠다고 하며, 전통이 현대와 어우러진 이른바 ‘살아있는 박물관’을 구상하고 있다. 아들 세대로 오랜 가업을 취미인 듯 즐기며 자손만대로 즐거운 명주길쌈 인생이 되길 바란다.

미래는 국제 교류의 시대이다. 예로부터 명주 옷감은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되며 동서 교류의 장을 열었다. 경주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유하는 국가의 전통의복, 길쌈도구, 직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사단법인 아시아실크헤리티지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또한 양잠과 비단 직조기술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북한과의 상호 교류 및 기술전수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 11월 16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북한이 단독 신청한 '조선옷차림풍습(한복)'에 대해 등재 불가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옷 한복'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복진흥원과 연계하여 '남·북한 명주길쌈과 한복-우리옷'의 남북 공동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문화·학술·기술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이해의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베를린에서

: 베를린 장애인 재활치료 컨퍼런스 참석 후기



김 환 회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필자는 지난 12월 8-9일 (사)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재활치료 독일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행안부 펀딩으로 주최하게 되었는데 준비과정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연히 독일의 코로나 상황이 사업진행을 주저하게 하였고, 참석인원과 장소의 변동도 심하였다. 다행히 협의체 대표님(목사님)과 현지 코디네이터 교수님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기독교 대학인 타보르대학 총장의 초청장과 독일 공항경찰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베를린에 있는 한 호텔과 호텔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텅 빈 인천공항을 떠나 10시간 비행하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고, 베를린으로 가는 고속열차 ICE 에 타면서도 우리 일행 8명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 감사하게도 숙소와 이동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현지 목사님이셨는데 정진호 교수님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셔서 여기서도 ‘천국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2018년 4월 창립, 2019년 1월 북측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통일부 대북지원 지정단체(No.120)가 되었다. 협의체는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북한용어-회복치료) 즉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의 발전을 위해 재활전문가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필자는 협의체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문에서 가까운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안에서 숙박, 식사, 회의, 컨퍼런스까지 모든 일정이 다 이루어졌다. 컨퍼런스에는 8,9일 이틀에 걸쳐 한국측 5명, 독일측 6명의 발표가 있었다.

첫 날 발표하셨던 베르너 페니히 교수님은 오랫동안 독일통일을 연구하시고 한국에도 여러번 오셔서 강연을 하셨다 한다. 교수님은 어렸을 때 동독에서 사셨는데 동독에서 사용했던 오래된 지도를 칠판에 걸어놓으시고 강연을 시작하셨다. 온화한 말투와 알지는 못하지만 독일어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지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학자의 진지함과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고 벌써부터 해답을 들은 듯한 생각에 마음이 편하여졌다.



교수님은 강연 중에 (관계)정상화(Normalisierung 노르말리 지에룽)라는 말을 많이 쓰셨다. “성공적인 정상화 과정이 없다면 평화로운 통일은 불가능하다. 현 상황, 즉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정상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정상화는 한쪽의 ‘선불금’으로 시작된다...정상화가 진행될수록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나아가서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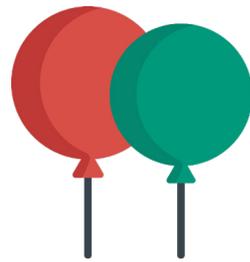
또한 비핵화는 정상화 과정의 초기가 아닌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능하십니다 라는 한국에서는 다소 민감한 내용도 말씀하셨다. 강의 후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국제자문위원 위촉을 승낙하셨다.

현지 코디네이터인 한미순 교수님(타보르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강의에서는 통독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이 정말로 촘촘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독의 기본소득을 올려서 맞추어 주기 위해 거두었던 연대세(Solidaritaetszuschlag)를 지금도 내고 있다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내년에야 연대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사회보장이나 연금정책, 직업재활 정책들은 독일에서 배워온 것이 많다.

돌테퍼(Doll-Tepper) 교수님은 동서독간의 패럴림픽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강의 후 북측이 패럴림픽 참가를 원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질문하였다. 답변으로 독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저개발국가 참가지원 예산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북측이 원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다. 북측이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많다.

이틀 동안 열린 행사에 11개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측 발표자들은 통역포함 50분, 독일측 발표자들은 80분의 시간이 할애가 되었는데 독일 측 발표자들은 모두 제 시간을 다 쓰셨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질문 하나에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셨다. 현지 코로나 사정이 더 어려운데 기꺼이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유학 중인 작업치료 학생과 이민 온 탈북학생도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었다.

시차적응과 빡빡한 강의들로 이틀날 오후엔 모두 힘들어 하였다. 내 발표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마치자마자 모두 박수치고 기뻐하며 함께 수고했음을 격려해주었다.



강의를 마치면서 나는 ‘재활치료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해간 독일어로 외쳤다. 독일 분들에게 남북 평화 협력에 재활전문가들도 함께 한다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협의체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마지막 밤에 동그렇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독일 한미순 교수님이 ‘왜 여러분은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던지셨다. 그 한 마디로 우린 한 사람씩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각자에게 북한에 대한 운명같은 개인의 히스토리들을 들으면서 감동하였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베를린에서의 컨퍼런스가 북측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80일 전투가 끝나가는데 다치지 말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말고 건강히 겨울을 보내기를 기도한다.

★ 12월의 소식



1) 지난 11월 30일에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의 2020년 연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포럼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협력하여 내년에 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후원자 목록(11/15-12/24)

임한나, 안형준, 정진호, 강경숙, 김환, 김매자, 유혜영, 윤현중, 강태호, 서민태

3) 23일에 우리 포럼의 배기찬 회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매달 15일에 발간할 뉴스레터 <올독>에 우리 포럼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컬럼이나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포럼 공식 메일 (OneEastSea.Forum@gmail.com) 또는 안정윤 연구원 (ahn123@handong.edu)에게 매달 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5) 한동해 포럼이란?

① 소개글



6) 회원가입 안내

① 입회 신청서



② 정관

